

96. 8. 7

우울증주부 6개월쌍둥이 살해

목욕중 욕조에 빠뜨려

우울증에 시달리던 주부가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.

6일 낮 12시2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319동 1508호 조 아무개(31·회사원)씨 집에서 부인 유미애(30)씨가 항현군과 서현양 남매를 목욕시키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. 유씨는 곧 경찰에 전화해 “남매가 물에 빠져 숨졌다”고 자수했다.

경찰은 “아내가 4개월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군산의 한 병원에서 한달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, 치료를 받던 중에도 아이

들이 보기 싫다고 말하는 등 정을 붙이지 못하고 짜증을 자주 냈다”는 남편 조씨의 말로 미뤄 유씨가 우울증으로 아이들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.

경찰은 이날 유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구속하는 한편,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.

정남구 기자